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5년 연속 1위
LG 트롬

LG 트롬 | Objet Collection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며 혁신 거듭한 LG 트롬

LG전자는 1969년 국내 최초 백조 세탁기로 기계로 빨래하는 시대를 열었다.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드럼과 통돌이, 두 개의 세탁기를 하나로 결합한 혁신적인 세탁기 LG 트롬 트윈워시를 출시하여 동시세탁과 분리세탁이 가능케 했다. 2020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진 국내 최초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했다. 올해에는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히트펌프 방식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워시콤보를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능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 제공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세탁기를 출시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탁 문화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백조 세탁기를 시초로 통돌이 세탁기로 알려진 전자동 세탁기, 2015년 세탁기 두 대를 결합한 LG 트롬 트윈워시, LG 트롬 워시타워까지 혁신을 거듭해 왔다. LG전자는 세탁기를 단지 빨래하는 기계로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가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24년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끝내는 트롬 워시콤보를 출시했다. 트롬 워시콤보는 세탁과 건조 용량이 각각 25kg, 15kg인 올인원 세탁건조기다. 시작 버튼만 한 번 누르면 세탁 후 세탁물을 꺼내지 않고 건조까지 마치는 올인원 제품인데, 제품 크기는 기존 동급 트롬 세탁기 한 대와 똑같이 콤팩트한 크기다. 좁은 장소에도 설치 가능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해당 제품은 LG전자가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고객 경험 혁신을 실현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인공지능 DD와 6모션으로 맞춤 세탁

1998년 세계 최초 세탁조에 모터를 직접 연결해 혁신인 기술을 선보인 'Direct Drive 모터'는 LG 트롬의 차별화된 핵심 기술력인 코어테크(Core Tech)다. 특히 인버터 DD 모터의 정밀 속도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두드리기, 주무르기, 비비기, 흔들기, 꼭꼭짜기, 풀어주기 등 손빨래 동작을 구현한 6모션은 자랑거리로 꼽힌다. 2020년에는 딥러닝 인공지능 DD 모터가 탑재됐다.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은 의류의 재질을 감지해 세탁방식을 섬세하게 구현한다. 부드러운 의류에는 옷감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섬세한 모션을, 뽀뽀한 의류는 깨끗한 세탁을 위해 강력한 모션을 사용하여 정교한 맞춤 세탁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 소비자의 세탁 환경에 맞춰 탈수를 진행하는 등 LG전자의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진화 중이다. LG 트롬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은 2022년 업계 최초로 글로벌 안전과학회사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딥러닝 인공지능 검증(Deep Learning AI Verification)'을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INTERVIEW



조 주완 LG전자(주) 대표이사

LG 트롬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드럼세탁기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단순히 세탁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G 트롬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함을 인정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G 트롬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가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사용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함과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편의성까지 더한 제품들을 통해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